

요한복음 5장 17-23절 말씀

1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

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

18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

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

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

19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

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

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

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

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

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

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

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

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

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

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

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

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

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

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

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

요한복음 5장 25-30절 말씀

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

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

곧 이때라

듣는 자는 살아나리라

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

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

27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

28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

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

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,

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

30 내가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

듣는 대로 심판하노니

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

내 심판은 의로우니라